

한옥마을 문화시설 개방시간 연장

전주시, 여행 성수기 맞아 체험프로그램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발굴

관광객들 요구 부응에 개방시간 연장

전주시가 여행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내 주요 문화시설의 개방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최명희문화관과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소리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 한옥마을역사관 등 전주한옥마을 내 주요 문화시설 7개소의 개방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광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일조시간이 길어 주요 문화시설이 문을 닫는 6시 이후에도 한옥마을을 찾는 관

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발굴에 대한 관광객들의 요구에 부응해 개방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문화시설의 개방시간이 연장되면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의 문화욕구 충족에 따른 관광민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들 7개 문화시설 방문객들의 만족도와 운영효과 등을 검토한 후 나머지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개방시

간의 연장운영 방안을 검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황관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성수기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름 휴가철에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문화행사 와 풍성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한옥마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방시간 연장에 따라 문화시설 상설 프로그램도 연장 운영 된다. 문화시설 상설 프로그램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 관람과 유료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눠지며 유료체험의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시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송효철기자

‘에헤야 전주단오~ 덕진연못 물맞이 가세’

2018 전주단오, 17일~18일 전주덕진공원 일원에서 진행

전주시의 대표적인 절기 행사인 2018 전주단오 행사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전주덕진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풍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전주단오 행사는 천 년전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전주시민들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세시풍속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온 축제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주시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중요한 행사로 손꼽혀왔다.

‘에헤야 전주단오! 덕진연못 물맞이 가세’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올 행사에서는 단오풍류체험과 단오겨루기, 단오풍류공연, 부대행사, 특별행사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이 펼쳐진다.

먼저, 단오풍류체험은 △창포물에 머리감기 △단오 약쑈 인절미 떡메치기 △오색실 팔찌 만들기 △단오 부적 짖기 △전주부채문화관 부채 소장품전 △단오등에 소원지달기 △단오공예체험 등 전주단오의 대표적인 행사들이 열린다.

또한, 단오겨루기는 단오날인 18일 전주시 33개동 주민들이 참여, 씨름대회와 그네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가족윷놀이겨루기와 전통놀이체험이벤트도 행사기간 수시로 열린다.

단오풍류공연의 경우 노래와 무용, 춤, 악기연주, 풍물 등 30여 문

내내 즐겁고 신명난 모습을 보여 준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어르신장수사건활동과 발관리서비스 건강검진, 우리동네프리마켓, 홍보마당, 먹거리점퍼가 열린다.

특별행사로 2018 세계민속춤페스티벌은 전국의 춤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춤의 잔치로 단오의 흥을 한껏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황관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행사장 주변 주차 공간이 부족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단오 풍류체험과 풍류공연, 민속놀이 겨루기 등 다양하게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기자

원광대, 산학협력·컨설팅 사업 과제 계약체결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보건보완의대학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와 곤충산업연구회가 최근 시흥에 있는 곤충산업연구회에서 산학협력 협약 및 컨설팅 사업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곤충을 활용한 치유농업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원광대 보건보완의대학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는 곤충을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효과 검증 매뉴얼 개발 및 곤충 농가들의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운영을 맡아 수행한다.

한편,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김옥진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시행된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곤충분야) 컨설팅 사업 과제를 맡아 곤충을 활용한 심리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도 했으며 올해는 곤충 활용 치유농업 분야에 지금까지의 성과를 접목해 표준화된 곤충 활용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으로 치유농업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옥진 교수는 “곤충을 활용한 치유 모델 개발 및 적용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국민의 정서적 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과 컨설팅 사업 진행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곤충산업의 패러다임을 치유농업 분야로 전환하고, 치유 곤충을 활용한 정서 및 심리적 치유 효과에 대한 과학적 지원 제시와 더불어 실무자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잔류농약 없는 안전한 시민 먹거리 제공

‘PLS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 시행

전주시가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도와 시민들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PLS는 수입 및 국내 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0.01ppm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시행되는 PLS 검사 결과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부적합’ 판정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농산물은 전량 폐기 또는 출하연기됨으로 영세 농가의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다묘작, 다년생 작물의 경우, 재배 농가들의 비의도적 검출가능성이 높는데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경우, 어려운 용어 등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시행착오가 잇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방지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지역농협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연

계, 농업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경채류와 염채류 등의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사용가능한 농약이 적어 해당 작물 생산 농가들의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만큼, 현재 농가 피해에 직접적인 대책으로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약 직권등록 수요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올해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84개 작물을 대상으로 1,670개 농약을 직권등록 예정이므로,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www.nongsara.go.kr)에서 농약직권등록시험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농업인들이 PLS 제도를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주시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진행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업체와 농약판매상, 농업인 등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인 만큼, 농업인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농약사용방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기자

당복초, 등굣길

건강사랑 실천 캠페인

당복초등학교(교장 권영숙)는 지난 12일 아침 등굣길에 ‘아침밥 먹자!’, ‘허그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당복교육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그 의미가 더욱 컸다.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아침밥을 나누어 주며 아침밥을 꼭 먹자고 당부하였고, 선생님은 인형 탈을 쓰고 등굣길 학생들을 안아주며 사랑을 실천해주었다.

학생들은 등굣길에 만나는 인형선생님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며 따뜻하게 인사하였다.

아침밥은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함께 새벽부터 준비한 정성스런 건강주먹밥과 요거트, 아이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아침을 먹었다.

학생들은 오늘 너무 행복하며 연신 상급생각하였고, 등굣길 학교 앞 마당은 축제장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인형의 주인공을 몸시 궁



당복초등학교(교장 권영숙)는 지난 12일 아침 등굣길에 ‘아침밥 먹자!’, ‘허그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금에 하였으며, 마지막 인형탈의 주인공을 맞추는 코너에서는 흥미진진한 모습으로 인형의 비밀을 밝혔다.

이 행사는 당복초등학교가 교육부지정 건강증진 거점학교로 선정되어 건강증진·휴먼예방 주간활동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건전한 건강마

인드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아침밥 먹자!’, ‘허그데이’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마인드를 형성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재훈기자

도교육청, 과학활동중심학교 구축 대상 17곳 선정

전북도교육청이 첨단 과학기자재를 활용해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과학활동중심학교 17교를 선정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청서를 낸 30교를 대상으로 계획서 심사를 거친 뒤, 초등학교 14교, 중학교 3교 등 17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군산, 익산이 각 2교 그 외 시·군은 각 1교를 선정했다.

과학활동중심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당 3천만원을 지원받아 1학기에 첨단과학기자재를 구축하게 되며, 2학기부터는 첨단 장비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들 학교에 구축될 첨단과학 기자재는 드론(조종, SW교육, 촬영용 등), 아두이노(아두이노용 보드, 센서, 키트 등), VR(디스플레이 헤드셋 및 컨트롤러, 디스플레이 스크린 장비 등), AR(투명홀로그램 렌즈 등)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 외의 첨단 과학기자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도전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훈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